

‘이방인의 품으로’(INTO THE ARMS OF STRANGERS)

(가제)

블레이크-립의 차기 프로젝트

‘이방인의 품으로’(가제)는 한국의 입양정책의 역사를 돌아보고, 한국아동의 대규모 해외입양에서 비롯된 도덕적, 정치적,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볼 영화이다. 한 개인의 사연을 토대로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-경제적 상황을 알아보면서, 그 사이사이에 사회사업 종사자들, 고아원 원장들, 부모들, 학자들, 정부 관리들과의 인터뷰가 삽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. 이 영화는 해외입양에서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모색할 것이다. 냉전과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한국의 입양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? 북한은 전후 고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나? 아이들이 국제규모의 상품이 된 것은 아닌가? 해외입양의 필요성을 예방해야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? 그냥 두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아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방안들은 무엇일까?

‘이방인의 품으로’를 위한 연구 개발은 2001년 여름에 시작될 것이다.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Mu Films, P.O. Box 5865 Berkeley, CA 94705